

더불어 보도자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5.05.21.(수)

오세희 의원실 02)784-0496~7

‘766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와 동행’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 소상공인위원회 주최,

더불어민주당-전국상인연합회, 대한네일미용사회와 정책 협약

- 협약식 후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청년상인 정착, 공동물류 지원 등 다양한 현안 제기
- 오세희 위원장 “무너지는 상권, 공실 확산...전국 현장의 절박한 요구 정책으로 연결할 것”

2025년 5월 21일 (수)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위원회 산하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는 5월 21일(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중앙회와 17개 시도 상인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네일미용사회와의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중앙선대위 소상공인위원회 주최로 소상공인 단체들이 제안한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공식 협약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전국상인연합회와 대한네일미용사회가 참여했다.

전국상인연합회 정책 협약식 및 간담회에는 박찬대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14개 시도 상인연합회 대표가 함께했다. 참석자는 △이충환 중앙회장, △권택준 부산지회장, △박재청 대구지회장, △서장열 인천지회장, △김승재 광주지회장, △구범림 대전지회장, △손병길 울산지회장, △이명훈 충북지회장, △복태만 전북지회장, △한승주 전남지회장, △김석훈 세종지회장, △남경표 서울지회 사무국장, △ 조은진 강원지회 감사, △최정희 충남지회 매니저, △조용식 자문위원이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역 상인연합회 대표들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상인회관 설립과 노후 시장 현대화를 위한 국비 확보, △청년상인 정착을 위한 임대료 보조 및 창업교육 확대 △공동물류체계 도입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찬대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생계의 터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상인 여러분이 지켜온 이 공간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려면, 민생과 골목경제를 중심에 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 협약은 전통시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며, 제안된 현장 과제들이 하나하나 제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 경청 투어를 통해 대전, 세종, 광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공실 증가와 상권 붕괴라는 현실을 직접 마주했다”며 “전국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도시계획이 포함된 지역 상권 생태계를 다시 설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과 간담회가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네일미용사회와의 정책 협약식에서는 강문태 회장과 해당 단체의 책임의원인 전진숙 먹사니즘위원회 보육위원장이 참석했다.

전진숙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업계 현장의 고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폐업이 잦고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업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앞으로도 단체별 협약 과제를 기반으로 책임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끝/.

붙임1. 정책협약식 사진

